높은 생산력 단계 조응하는 근대적 복합경영체제 요구돼

U.R.로 본 농촌 위기와 대응방안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농촌위기 부채질
유통구조 개선통한 농가소득 보장해야
개별경영과 공동경영 조화로 지역농 확립절실

I. 우르과이협상과 수입개방

한국사회의 현 농업경제는 무척 심각하다. 특히 식량수출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제는 국내농업의 생존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크게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나누어 진다. 수출국들은 70년대 세계식량위기정세하에 자국농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경쟁적인 수출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과거 지위를 벗어난 선진수출 국가들과 과거 1차상품의 교역특화로 재미를 보다가 각국의 보호물결에 따른 국제가격 인하 수출량감소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득을 보지 못했던 남미국들이다.

이들의 무역자유화주장은 케언즈그룹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현재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수입국의 입장(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우리의 농업상황을 무시한 협상의 결과는 개방농정에 의해 심화된 농업위기 상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의 가속을 전제로 하는 협상을 받아들일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크다.

또한 정부당국은 실제로 수입개방의 상황이 오래전부터(70년대 말)필연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며 정부로서는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상업적 전업농'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89.4월 기획원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공식화되고, 올해 초에 입법화되어 곧 효력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I. 정부의 구조 개선안

농업 발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구조개선과 이를 보완키 위한 농촌공업화 정책이다.

이에 대해서 정책의 반농민성과 비현실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근절하지 않고 오히려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방기하거나 합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고 전업농중심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위탁경영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재벌과 비농민의 투기적인 농지구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반농민적인 정책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농산물수입개방에 의한 저농산물가격으로 농업수익성이 낮아 농민이 경영확대를 위해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비농민에 의한 투기적 매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상업적 전업농'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2천년대 농가호당 평균경지규모를 87년 1.15헥타에서 1.67헥타(상업적 전업농의 경우 호당 2.70헥타로 확대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경쟁대상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의 1/20에 불과하여 규모확대의 의미가 없다.

둘째, 정부는 농촌 공업화정책을 농업포기가 아니라 농가 및 농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농촌 공업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확립하는 농업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자본의 입장에서 농촌을 재편하는 농촌개발정책 즉 공업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수출주도형 불균형전략하에서 형성된 경제구조때문에 농촌에서 기업활동을 할 입지조건은 땅값이 싼 것 뿐이다.

농공지구의 입주도 땅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고 도시와의 왕래가 쉬운 대도시 근교를 제외하면 잘될 전망이 없으며 대도시 근교라할지라도 입주는 활발하지만 막상 입주업체들은 기술인력의 부족,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금융상의 애로 등으로 많은 곤란이 있다.

현지 농민 고용면에서도 농촌노동력의 중심이 장년 노동력이어서 새로운 공업노동에의 적응은 쉽지않다.

따라서 입주 업체들은 현지 농어민이 아닌 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정부의 농업구조개선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의 전용을 보다 쉽게하여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합법화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수익성만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의 방향은 많은 하층영세농가의 탈농을 대책없이 강요하는 반농민적인 것이며 현실성이 없다.

III. 농민적 농업발전 대책

영세소농의 대량몰락을 수반하는 이상의 농업 정책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대응은 농민의 영세한 자본과 토지를 단일 경영주체를 집중화하는 경영적 협업화가 있다. 양자는 모두 영세소농구조를 개선하여 생산력 향상을 꾀하는 농업구조개선 방향에는 기업농적 육성방향과 협업농육성방향 즉 자본에 의한 위로부터의 재편, 농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재편이라는 면에서 크게 대립되는 방향이 있다. 기업농육성론은 개별경영간 경쟁, 도태를 통한 것이며, 협업화는 소농협동을 통한 개별경영의 지향을 목적으로 한다.

서두에서 제기했지만 한국농업이 살길은 자본의 개방의도를 분쇄하고 농민적 농업방향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협업화는 농민적 농업발전의 방향으로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경영을 재편하는 문제는 개별경영의 확대와 공동경영(공동화)의 조화에 기초한 지역농업의 확립을 추구해가야한다고 생각된다.

즉 개별경영의 몰락을 전제로 한 경영의 확립이 아닌 개별과 지역, 개별과 집단의조화에 기초하여 농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역농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토지, 노동력, 자본 그리고 중간생산물을 지역단위로 재편성하고 개별경영의 적절한 결합에 의해서 농업경영의 기본원리인 규모의 경제성과 보완관계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여 지역전체로서의 농업의 생산성·수익성의 수준을 높인다.

또한 농업경영의 단작화 경향은 가능한한 지향하고 높은 생산력 단계에 조응한 근대적 복합경영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내부의 취업기획확대와 식량공급력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즉 농민적 발전방향은 농민주체의 농민적 토지소유의 안정을 기반으로부터 가능한 단위간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향인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개방노력을 적극 저지하는 것이 전제로 됨은 말할 나위 없다.

강 성 호
〈 중앙대 대학원 졸·경제학 〉

한 손엔 '성경' 또한 손엔 '돈'

데스크 칼럼

박 웅
〈 본보 문화부장 〉

반공으로 무장한 거대한 기업체

삼국지-이문열본-을 읽은 사람이라면 기억나는 몇가지 얘기들이 있을것이다. 그중에 유비와 공손찬의 스승인 '노식'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황건적의 난 때 나라의 부름을 받아 대장군이 되기도 했던 학자 노식은 그가 초야에 묻혀 제자들을 가르키던 시절 두 애제자 유비와 공손찬을 불러 "난세에 가장 위험한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두 제자의 답변을 물리치며 그는 "종교를 하는 무리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며 황건적의 난을 예언하였다.

실로 종교란 그 힘을 측량할 길이 없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란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역시 묘한 종교냄새가 난다. 종교를 신망하는 사람들에겐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있다.

즉 그것이 어떠한 종교인사를 불문하고 그 나름대로의 기적과 교리가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때론 맹목적이기도 하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믿는 불상사는 유사이래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도덕과 양심은, 그래서 더욱 착실하고 믿음직 스러워야 한다. 수많은 신도들을 거드린 교주 혹은 종교지도자들의 인격이 문제시될 때 이것은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되기도 하고 역사를 뒤엎기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을 정확히 예측한 이가 '노식'선생이다.

최근 신문의 여기저기 눈에 뜨이는 통일교의 기사들을 읽으며 무척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문선명목사에 의해 창도된 통일교는 이제 그 교도가 수없이 많은 거대한 종교집단이 되었다.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걱정하는 소리와 기성기독교인들의 이단 시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문목사의 탁월한(?) 포교로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있어 이제 어느 누구도 쉽게 대할 수 없는 말그대로 어마어마한 세력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통일교의 최근의 움직임이다. 지독한 반공주의자인 문선명이 소련대통령 고르바쵸프를 만나고 오기도 하고 중국에 가기도 할 것이며, 북한의 김일성주석과도 만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시사저널 최근호에 통일교재단인 한국문화재단총재 박보희의 인터뷰를 보면 문은 고르비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극동의 평화는 소련이 책임져야 하며 김일성을 설득하여 다시는 불행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한다. 게다가 얼마전 떠들석했던 노·고르비 회담도 문선명이 성사시켰다고 한다.

통일교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힘과 자본의 위력이 적절히 조화하여 발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경제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영향력이 바람직하게 쓰여야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사명이다. 공산주의가 하루속히 없어져야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며 공산주의는 레닌혁명이후 70년만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문선명씨는 소련의 개혁을 공산주의 멸망의 시작으로 본다고 한다.

외세의 강점에 의한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민족이 살상되었고 또 이념의 반목으로 수많은 민족을 살상한 과거의 우리 역사앞에서 아직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산주의가 멸망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돈이 없는 수많은 민중들앞에서 한손에는 경전을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포교를 하고 있는 그들의 돈 앞에 세계평화는 주물럭 반죽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전국의 8백만 성공연합 회원만으로도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신도 중에 유능한 인재들에게 돈을 대주어 국회진출을 장려할 수도 있으며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 교인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읍니다"라고 망언을 서슴치 않는 그들은 과연누구인가?

"황건적의 난을 기억하는 이는 노식선생의 이야기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창살 속에서도 식지않는 동지애

두사람의 옥중서신을 실으려 했으나 이기헌 수원 총학생회장은 편지 검열이 심한 관계로 인터뷰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수원총학생회장 이 기 헌 군

"개강한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학우여러분에게 인사도 못드리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것이 너무도 죄송합니다"며 구멍뚫린 유리창 너머에서 까지도 학우들을 걱정하며 이기헌군은 말문을 열었다.

지난달 12일 한국외국어대학 용인캠퍼스 앞에서 경원대에서 있을 성남지역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성남으로 향하던중 180여명의 정사복경찰들에 연행되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2학기 총학생회 사업운영입니다. 하지만 학우대중들 속에서 학생회체계가 올바로 선다면 굳이 제가 없더라도 별다른 일이 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고 말하는 이기헌군의 말속에서 학우대중과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잘 지내고 있읍니다. 몸도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있지요"며 대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민망할정도로 밝은 얼굴을 하면서 그 짧은 3분 면회시간에도 기자의 방학생활등의 생활을 물어보는 여유와 세심함까지 엿보였다.

"변호사 신청을 했는데 9월말께 결론이 날겁니다. 아직 확실한 재판날짜도 안 잡혔구요.

그렇게 되다보니 수원캠퍼스 개교이래 최대행사라면 행사랄 수 있는 학생회관 입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로 아쉽습니다. 모쪼록 학생회관에 입주하게 되면 좀더 많은 학우들이 나름대로의 활동공간을 갖고 학교에 애착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길바랍니다"며 수업시간만 끝나면 집으로 가버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또한 지난 8월22일 학교에 보냈던 편지가 도착 안했던 사실을 볼때 감시가 매우 삼엄한것으로 보였다. 〈暎〉

서울부총학생회장 심 민 성 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한 학교의 간부로서 우리 자주경희를 애국의 불기둥으로, 학원자주의 모범으로 우뚝 세우고자 힘차게 진군해왔던 제22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심민성 다가올 통일조국의 희망으로 벅찬 가슴안고 인사드립니다.

저토록 청명한 가을하늘 어머니 조국의 품 안에서, 1990년 애국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의 도약선상에서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함께하고 비판하는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 엄중한 역사의 한 복판에서 다시한번 학생회 주변으로 똘똘 뭉치어 1만학우의 힘과 지혜로 새롭게 도약할 제22대 총학생회 2학기 진군식을 멀리서나마 그러나 가장 열렬하게 축하드립니다. 현 민자당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학원탄압에 의연히 맞서지 못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적들의 포로가 되어 이토록 가슴벅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듯 푸른 수의를 입고서 지지의 마음을 전할 수 밖에 없음에 죄스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7천만 겨레의 통일열망으로 그토록 뜨겁게 달아올랐던 90년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현 민자당 정권의 장기집권 구도와 조국의 영구분열음모가 가속화될 이 계절은 우리 청년학생에겐 그 어느해보다도 커다란 사색과 깊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결을 고민하시고, 열악한 조건일수록 먼저 결사하고 일어서는 현명함으로 진정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과 자주경희가 되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들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빌어보며 이만 각필합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文責:전만환記者〉

소외 딛고 일어선 도시빈민

현장취재

지난 6일 한양대 민주광장에서 '전국빈민연합' 주최로 열린 '도시빈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진로대회'가 열렸다.

노태우 정권의 정략적인 '대북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층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와 생존권 쟁취 투쟁에 대한 탄압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정권의 '민중생존권 압살정책'을 규탄하며, ▲강제철거 박살내고 임대 주택 쟁취하자! ▲전국노점상 연합회를 사수하고 자립법을 쟁취하자! ▲건설노동과 총단결로 실업수당 쟁취하자! 라는 구호를 내 걸고 생존권투쟁을 反노태우 투쟁으로 집중시켜 나갈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씨는 결의문을 통하여 "이제 민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의 전열을 다지고 있다. 9월 7일은 전국의 농민들이 노태우타도를 외치며 일어설 것이고, 9월 22일에는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민자당해체와 노태우타도, 그리고 이제는 쓸모없는 국회의 해산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인성 記者〉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GoldStar 럭키금성

합리적인 병원관리, 효율적인 환자관리 —
『금성 병원전산시스템』이 이루어 드립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및 늘어나는 환자로 인해 병원업무, 의사들의 진료업무가 한층 복잡해져, 컴퓨터 없이는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금성 병원전산시스템은 일부 데이터를 PC에서 처리하는 PCI 기법을 개발하여 메인 컴퓨터의 고장시에도 창구업무가 마비됨이 없이 항상 환자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금성 병원전산시스템이 간편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병원관리,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이루어 드립니다.

금성 병원전산시스템이 하는 일
- 환자안내, 진료예약, 처방전 발행, 평생카드 발급, 병실관리
- 진료비 수납, 회계, 재고, 구매, 자산관리
- 의무기록 관리, 임상병리(의료기기 인터페이스)

금성 컴퓨터 납품현황
■ DPS8000 대형컴퓨터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 DPS6000 중형컴퓨터
서울 백병원, 을지병원, 국립의료원, 고대 혜화병원, 인하병원, 부산 메리놀병원, 서울 순천향병원, 부산 백병원, 연세의료원, 고대 구로병원, 원주 기독병원, 대전 을지병원, 한국병원, 부산 성분도병원, 건대민중병원, 포항 성모병원, 카도릭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GS8000 소형컴퓨터
부산 시민병원, 서울시립학교 건강관리소, 일신병원

금성 병원전산시스템
금성사

● 컴퓨터영업부: (02) 705-3377, (02) 701-1276 ● 영업과: (02) 705-3377~9
● 부산영업소: (051) 806-4701~2 ● 대구영업소: (053) 253-4426~7
● 대전영업소: (042) 257-7874 ● 광주영업소: (062) 571-8717
● 고객지원실: (02) 705-3500
● 금성협력체: 컴퓨터비지니스 (02) 739-0777